

[환경]

환경위기사계 9시 33분

인류생존 위기감 "매우 불안" ... 한국은 9시 26분

뜨거워진 한반도 '농작물 지도'가 바뀐다

난지 과일인 한라봉은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고흥과 경남 거제에서 생산되고 있고 맥(麥)류의 경우 추위에 약한 쌀보리를 이젠 강

34년새 연평균 기온 0.95도·강우량 283mm 증가

제주 한라봉·보성 녹차 등 재배 한계선 북상중

벼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충해도 아열대성 확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과 산지인 경북 영천의 2006년 사과 재배면적은 842ha로 10년 전인 1996년 1천336ha에 비해 37%인 494ha가 감소했다. 대신 국내 재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던 망고나 구아바, 파파야, 아보카도 등 8개 아열대 과일의 지난해 재배면적은 44.1ha에 이르고 생산량은 698t에 달했다.

고온과 집중호우, 일조량 부족 등 한반도의 기상 여건이 변하면서 농작물의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기후변화 상황과 농업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1973~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0.95도 상승했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치인 0.73도에 견줘 상승 속도가 빠르다. 특히 인구가 20만명 이상인 도시지역은 1.23도가 상승해 농촌지역 0.81도보다 기온 상승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강우량도 283mm 증가했다. 하루 강우량 80mm 이상인 강해성 강우도 70년대와 80년대 연간 2.1일이었던 것이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3.0일로 늘어났다. 계절별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조량은 34년 동안 연간 378시간이 줄어들었다. 1970년대 2천400시간이었던 일조시간은 지난해 1천998시간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재배지역이 바뀌었다. 지금껏 재배할 수 없었던 난대성 작물의 재배가 가능해진 것이다.

과거에는 '녹차=보성'이었지만 이젠 강원도 고성에서도 녹차 밭이 생겼으며 충남 아산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는 쌀보리는 인천 강화도에서도 재배된다.

사과의 경우 30년 전에는 전국적인 수확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남과 경남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사과의 재배 면적은 10년 전보다 37%나 줄었다. 농진청에 따르면 30년 뒤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여 사과와 강원도 특산품으로 대접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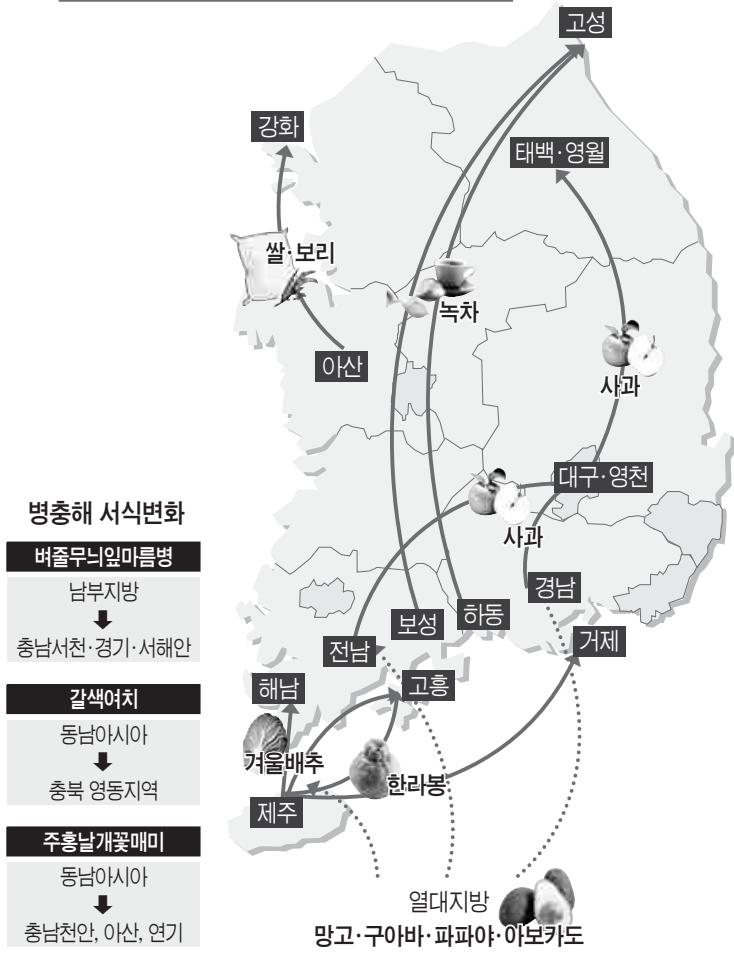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니라 병충해 발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열대성 병해충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35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최초 발생했던 벼 줄무늬잎마름병은 주로 남부지역에서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서천과 경기 서해안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연중 온도차가 심한 국내에서 대량 번식하기 힘든 갈색어치 최근 충북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량 번식하면서 포도와 복숭아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주홍날개꽃매미는 올해 충북 청주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농작물 변화



충남 천안, 아산, 연기 지역에 대량 번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따케 농진청 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단장은 "기후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은 세계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위기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사계'가 올해 9시 33분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위기사계는 세계 환경전문가들이 지구환경 파괴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감을 시각으로 나타낸 것을 평균낸 값으로 12시는 인류 멸망을 뜻하며 9~12시만 '매우 불안', 6~9시는 '매우 불안' 등을 나타낸다.

올해 환경위기사계 조사에 응답한 환경전문가들은 한국을 포함한 81개국 732명으로 이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지구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구온난화(68%)를 꼽았으며 물 부족·식량문제와 산림훼손·사막화·생물다양성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환경전문가 중 절반가량은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등 재생에너지 사용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올해 환경위기사계는 지난해보다 2분가량 빨라져 1992년 첫 조사 이후 인류멸망시(時)인 12시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환경위기사계는 지난해보다 2분 느려진 9시 26분으로 조사됐다.

환경재단 측은 "매년 환경위험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주원인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하다"며 "한국의 환경위기사계가 2분 늦춰진 것은 환경오염위험이 감소했다기 보다는 위기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소태C 등서 연중 서비스

광주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 점검 서비스는 첫째주 금요일 동구 소태C, 둘째주 금요일 서구 월드컵경기장 앞, 셋째주 금요일 남구 노대마을 앞, 넷째주 금요일 첨단지구, 매주 화요일 북구 삼각동 등 시내 주요 지점 5곳에서 실시한다.

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자동차 왕래가 많은 시청 주차장과 대형마트 주차장, LPG 충전소 등에서 '찾

아가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 서비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10대 이상 소유한 사업장이나 아파트, 기관 등에서 기후변화대응(062-613-4343)에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Call) 무료 점검'도 병행기로 했다.

시는 무료 점검 장소에서 매월 자동차 제작사와 합동으로 간단한 정비도 무상으로 해주며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올바른 차량 관리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고래 생명 위협하는 '소음 바다'

군사용 초음파 탐지 등 고래 교신 막고 먹이찾기 방해

전세계 바다의 소음 수준이 고래와 돌고래를 비롯한 해양 포유동물들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국제동물복지기구(IFAW)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IFAW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고래들의 교신을 차단하고 먹이 찾기에 장애를 일으킨다면서 각국 해군의 초음파 통신이 일부 고래의 집단 폐사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소음이 10년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조치는 실패하고 있다면서 "사람이 문자 그대로 해양 포유류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FAW는 "소음이 특정 동물들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래와 돌고래는 소리를 생수 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왕고래와 혹등고래 등 수염고래는 물 속에서 수천km를 이동하는 저주파를 내며 돌고래와 이빨고래는 먹이감을 찾는데 고주파음을 이용한다.

그러나 선박의 엔진과 프로펠러, 석유·가스 탐사에 사용되는 지진과 발생 에너지를 탐지하는 주파대의 소음을 일으켜 고래들의 교신과 먹이 찾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IFAW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왕고래들의 교신



거리가 엔진 구동 상선들이 등장하기 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으며 군사용 고에너지 초음파 시스템으로 돌고래들이 집단으로 방향을 잃거나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음파는 해양 포유동물들의 잠수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이들은 마치 인간 잠수부가 너무 빨리 수면으로 부상할 때와 같은 색전증 비슷

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IFAW는 환경 단체들의 압력으로 미군과 일부 석유 회사들이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간 지역에서는 이런 장비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각국의 소음 제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 저탄소 시범도시 홍보 나섰다

에너지 절약 실천 등 교육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탄소은행 등 저탄소 시범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생활수칙 전광판 홍보와 워크숍 개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주부터 광주시청과 전남 체신청 앞, 시내버스·지하철 승강장 등 광주시내 323곳의 전광판에서 문자와 사진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저탄소 시범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탄소거래소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제 앞서 지난달 28일 주월동 국제관광호텔에서는 광주지역 아파트 대표자 150명을 대상으로 '2008에너지 절약과 탄소은행 운영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탄소은행과 에너지 절약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특히 ▲실내온도 적정 유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 구입 ▲쓰레기 재활용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8대 생활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0일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탄소거래소 유치 등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부동산 경매의 자부심 대중법률경매(주) T.062)228-1368 062)226-1399

상무랜드공인중개사 (01)383-5221 (011)609-5221

금보부동산건설 (02)261-8949 (011)602-2233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